

한국불교 아프리카에 농업학교 설립한다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 개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를 건립해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선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민족의 아픔인 한반도 전쟁의 참혹함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그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가 생활환경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들이 배움 속에서 미래를 가꾸 나갈 수 있도록 수확할 학교 건립이 절실하다. 오늘의 발원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한국국제

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민간단체사업발굴지원에 선정돼 아프리카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탄자니아 토지 4만여 평을, 재단법인 선원수좌회(대표이사 의정)가 5억을 기부하면서 사업논의가

"청소년들 배움으로 미래찾길"
4만평 부지...2015년 개교
학교 건립위한 모금활동 개시

본격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흥법문화재단 이사장 정우 스님이 학교건립 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는 오랜 식민통치, 최고의 가뭄으로 2억 명 이상의 기아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국제연합 등 각종 국제기구와

이웃종교 단체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아직 미진한 실정어서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건립될 부지는 탄자니아 경제수도로 꼽히는 다르에스살람 지역으로, 도심권의 비싼 집값으로 테메케군에 빈곤주민이 밀집 거주한 곳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학교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오는 8-9월 중 기공식을 개최한다. 4만여 평 부지에 분관과 별관 2동, 학생·직원 기숙사와 식당 및 농업·목축을 위한 야외실습장과 운동장을 건립하고 2015년 9월 초 개교식을 계획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예산을 10억 원 내외로 책정했으나 이사회에서 예산을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를 추가 구입해 농업학교와 농업 부지를 확대 양질의 농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인문사와 공동모금 캠페인, 전국사찰 1배-100원모금-108배 법회 등 캠페인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페인, 전국사찰 1배-100원모금-108배 법회 등 캠페인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교계, 빈민국 교육봉사 활발
이와 함께 불교 국제구호단체들도 동남아 불교국가들 넘어 제3세계 국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스님)는 지난 4월 30일 케냐에서 울라피테트 만해 초등학교를 기공했다. 이미

2007년도에 케냐 나이로비에 지부를 건립한 지구촌공생회는 현재 프로젝트 매니저 2명, 활동단원 2명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더프라미스(이사장 범등)는 신생 독립국가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이다. 더프라미스는 동티모르에서 가장 먼저 공동식수개발 사업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현재 800여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밀양송전탑'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조계종 환경위 밀양 한국전력공사서 기자 회견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5일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밀양지역은 현재 765W 고압선을 전송하는 송전탑건설을 둘러싸고 밀양지역은 현재 765W 고압선을 전송하는 송전탑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는 "무엇보다 지난 2005년 송전선로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까지 정부와 한전은 과연 무엇을 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800여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환경위는 한전과 경찰은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통행금지 및 강제 진압 등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위는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주민들이

고, 시위 장소가 산속이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등 여건이 열악하므로 충분한 대화와 검토 후에 원만하게 일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위는 밀양송전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권 그리고 한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므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정부와 한전, 주민대표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협의체 조속히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위원장 장범 스님, 영축환경보존위원회 위원장 도안 스님,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표충사 총무 덕은 스님, 환경위원 김익중 동국대 교수, 최승현 부산대 교수, 이철현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5일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유지'

2014년 학제 개편 방침 철회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세웠던 불교문화대학 개편 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5월 30일 "2014학년도 경주캠퍼스 학제 개편에서 불교문화대학 학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29일 발표한 학제 개편에서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 폐지 후 △불교학과와 신학과는 불교학부 통합 후 인문과학계열 편입 △불교미술학과는 미술학과와 통합 △한국음악과는 3년 내 기존 미달 시 폐지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립학교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안팎의 반발에 긴급회의를 열고 불교문화대학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규박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사지원본부장은 "이번 학제 개편에서 불교문화대학 소속 학과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교내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이영근 인천공항 사장 직대 퇴진하라"

불교계 퇴진 운동 전개
차정권 첫 종교편향 규정
압박 높혀... 1인 시위도

인천공항 내 연등회 전통등 설치 과정에서 불거진 종교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사찰 및 불교단체들은 5월 31일부터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는 문화국장 수진 스님이 진행했으며 향후 포교사단 등 불교단체들이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교편향 논란은 불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27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종단협은 "국토교통부 등 책임기관



조계사는 31일 일주문 앞에서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의 공직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총무원

에서는 더 이상 종교적 갈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종은 5월 28일 대변인 주경스님(기확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중요무형 문화재 연등회의 장엄등을 특정종

교 상징물로 치부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이자, 원칙없는 행정제일주의에 기반 물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은 성대하게 진행하면서 '연등회' 전통등(傳統燈) 설치를 특정종교 상징물로 치부하면서 거 부한 것은 이 사장 직무대행의 명백한 종교편향 행위"라며 "금번 사

건은 박근혜 정부 최초의 종교편향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종교적 균형정책에 대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 사장 직무대행의 공개사과와 공직사퇴를 촉구했으며, 6년간 진행해온 크리스마스 점등식과 경비중수 의혹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교편향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중앙산도회(회장 이기흥)도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의 공개 사과와 공직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비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탑승동 안에 한국문화박물관을 설치해 석가탑, 내소사 고려동종,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불교문화의 대표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불교문화관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종일 기자

2013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생 모집

다시 바로 주인공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아버지의 지리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고단한 아버지란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속 깊이 담아둔 고민과 상처,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주인, 가정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Tel. 031-471-6926~7
매주 월요일은 휴무

'자유와 행복을 여는 지혜의 문'

비움과소통에서 펴낸 佛書들 (전국 서점에서 판매)

<p>『그대가 본래 부처』임을 설한 최고의 불경 《모법연화경》 본각선교원 편역 신국판 흑백 672쪽 26,500원</p>	<p>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원통圓通의 모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장 468페이지 808쪽 38,000원</p>	<p>타방정도와 유심정도를 포용하는 《임심정도 염불수행》 정목 지음 변형 신국판 컬러 232쪽 13,000원</p>	<p>자유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 지음 188x255mm 컬러 1304쪽 12,800원</p>	<p>신묘장구대다라니경과 대미수행 강설 《다라니 수행》 일산법성 지음 신국판 컬러 344쪽 15,000원</p>	<p>수심지심신통장 受持心通神通藏 《다라니의 힘》 일산법성 지음 신국판 부분 컬러 448쪽 15,000원</p>	<p>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심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hamwanoket 정명 역 368쪽 13,800원</p>	<p>육조단경과 자정 보는 법 《무엇이 그대의 불교인인가?》 견우회 역 신국판 2도 406쪽 17,500원</p>	<p>염불선으로 문 달아내다 《합하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덕산 역 신국판 304쪽 13,000원</p>	<p>한국 선종의 교과서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촬요》 견우회 역 변형크라운판 컬러 452쪽 15,500원</p>	<p>백장록 강설 백장선사의 범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 역 신국판 흑백 528쪽 20,000원</p>	<p>단박 깨닫는 마조록 공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 원오 역 신국판 흑백 240쪽 13,000원</p>
<p>한국의 백암록 『지지』 상권 선문답 해설 《자유인의 길 지지삼경》 덕산 역 신국판 흑백 320쪽 14,000원</p>	<p>한국의 백암록 『지지』 하권 선문답 해설 《영원한 행복의 길 지지삼경》 덕산 역 신국판 흑백 486쪽 19,500원</p>	<p>천태대사 '수습지관 修習止觀心法要' 강의 《지관止觀 수행》 송찬우 역 신국판 흑백 459쪽 19,500원</p>	<p>선종 염불선 법문과 깨달음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덕산 지음 신국판 흑백 270쪽 13,000원</p>	<p>생활 속의 변화경·보살상매론 공부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정 지음 신국판 2도 360쪽 15,000원</p>	<p>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계선선사》 박부경·한철·김성우 신국판 양장 256쪽 15,000원</p>	<p>해안 선사의 전성과 사자후 《7일 안에 깨쳐라》 동명 역 신국판 컬러 250쪽 15,000원</p>	<p>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공검인공劫人》 최운초 지음 신국판 부분 컬러 440쪽 16,500원</p>	<p>『한국의 유마』 백봉거사 선어록 《허공의 주인공》 전근홍 역 468페이지 흑백 360쪽 10,000원</p>	<p>오봉골 백송(白松)의 안신과 희망의 메시지 《일제가 애마멸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신국판 컬러 280쪽 14,000원</p>	<p>관세음보살 칭명염불 수행이야기 《빛과 소리》 석암 지음 468페이지 흑백 332쪽 12,800원</p>	<p>하심·인욕 수행지침서 《행복기심 - 참는 연습》 영국 지음 신국판 부분 컬러 334쪽 12,500원</p>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청소년·군포교·49재 등 불공양시 특별 할인! 문의 02-2632-8739 buddhapa5@hanmail.net